

性選好와 子女觀의 變化

曹 大 熙*

I. 序 論

願하기만 한다면 어느 때고 避妊과 妊娠中絶이 可能 한 與件 아래서는 家族規模-子女數의 決定에 가장 크게 作用하는 것이 子女數에 관한 價值觀이라는데 異見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出產避妊에 관한 知識이 거의 普遍化되었고, 避妊, 不妊, 人工妊娠中絶을 利用하는 것이 比較的, 容易한 만큼 子女數에 관한 選好가 人口成長에 거의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實際로 政府는 家族計劃事業을 시작할 때 부터 子女數에 대한 價值觀의 重要性에 눈을 돌리고 少子女價值觀이 뿌리내리도록 할 目的으로 各種「캠페인」을 벌여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實施된 出產力과 家族計劃에 관한 調查에서 거의 빠짐없이 一般的인 理想子女數 혹은 個人的 水準에서의 希望子女數를 重要한 調查項目으로 採擇하여 왔다. 이들 各種調查 中 全國規模로 實施된 主要調查 結果를 整理하면 表1과 같다. 이 表에 나타난 理想子女數는 여기에 그 結果가 報告된 모든 調查에서 同一한 質問을 使用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다. 즉, 1971年, 1973年, 1978年 調查에서는 “아주머니(혹은 부인)의 개인사정을 떠나서(우리나라에서는)부인들이 보통 몇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는가?”를 質問하였고, 1967年度 調查에서는 “부인께서는 보통 부인들이 몇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으며, 1965年 調查에서는 “부인께서는 이상적인 자녀수를 몇명이라 생각하십니까?”하고 묻고 있어서 個人的인 理想을 묻는지 아니면 社會的 理想을 묻는지 不分明하다. 1976年 調查의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質問은 언뜻 듣기에 應答者 個人的 理想을 묻는 듯한 印象을 준다.

質問方式(wording)이 應答婦人들의 反應에 重大한 影響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表 2에서 나타난 것처럼 婦人들의 理想子女數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傾向을 否定할 수 없다.

1965年以後 거의 20年間に 理想子女數는 거의 1.5명이 떨어졌다. 各年度別로 百分率 分布를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눈여겨 보면 最頻 理想子女數가 1960年代의 4名 以上에서 1960年代 前半期の 3名으로 다시 197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2名으로 옮겨진 것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理想子女數가 2名線을 훨씬 上廻하고 있어서 아직도 人口의 單純再生産을 保障하는 2名線에 이르려면 짧지않은 期間이 所要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婦人들의 理想子女數가 많다는 점도 問題러니와 大部分의 婦人들이 理想으로 하는 수 보다 많은 實際子女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 問題의 深刻性을 加重시키고 있다. 應答婦人들 中에는 出産을 終了하지 않은 婦人들이 多數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出産終了時의 實際子女數를 모든 婦人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다. 現存子女數에 追加希望子女數를 합하여 얻어지는 期待子女數로 實際子女數를 대신해도 無妨할 것으로 본다. 이 期待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差異如何는 이에 관한 追蹟調査가 試圖된 적이 없으므로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實際子女數가 期待子女數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어쨌든 理想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隔差는 理想子女數처럼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表 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理想과 現實의 隔差는 理想子女數, 追加希望子女數 및 期待子女數와는 달리 一貫된 減少傾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1971 調査結果에서 0.3名으로 떨어졌다가 1973年 調査結果에서 다시 0.6名으로 넓어졌다. 따라서 本 調査結果(0.3名)에서 보여준 감소현상이 얼마만큼 持續될 수 있는지 豫測하기가 힘들다 하겠다. 本章에서는 應答者 特性別 理想子女數의 差異를 既存 調査結果와 對照하는 외에 理想子女數와 實際子女數의 隔差를 應答婦人의 特性和 現存子女數 및 그 性構成(sex composition)別로 比較함으로써 어떤 人口層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아가 왜 이런 差가 생기는가 하는 의문에 부분적이나마 回答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應答婦人의 特性別 理想子女數

새로운 文化가 輸入되면 그 社會의 特定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採用되고 이것이 점차 다른 階層으로 拡散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小家族 選好라는 價值觀도 例外는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調査結果에서 理想子女數는 農村에서 보다는 都市에서, 年齡이 높은 層에서 보다는 낮은層에서, 教育이 낮은 婦人들 間에서 보다는 높은 婦人들 間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2의 1982年 調査結果는 위의 一般的 傾向을 再確認해주고 있다. 經濟의 生活水準이 理想子女數와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教育水準과 生活水準이 正의 相関關係를 維持하기 때문에 教育이라는 變數를 統制한다면 生活水準과 理想子女數와는 별다른 相関關係를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表 3은 몇 가지 應答婦人特性別 理想子女數를 各 年度別로 比較해 본 것이다. 여기서 모

은 地域, 모든 年齡層, 모든 教育水準에서 理想子女數가 줄어들고 있는 趨勢에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各 地域別, 年齡群別, 教育水準別 差異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興味있는 現象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小家族 價值觀이 점차로 普遍化되고 있다는 證據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가 지날수록 理想子女數가 줄어드는 것을 應答婦人의 年齡과 關聯시켜서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모든 사람의 理想子女數가 줄어드는 경우이고, 둘째 각자가 가지고 있는 觀念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은 子女를 理想으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하게 되어 평균 이상자녀수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만약 理想子女數의 減少가 전적으로 두번째 경우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可妊婦人을 対象으로하여 少子女 規範을 形成하기 위한 政府의 캠페인이 實効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理想子女數의 減少值중 얼마만큼이 위에서 든 두가지 要因에 의한 것인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코호트分析法을 適用해야겠지만, 여기서는 1968년 1973년, 1974년, 그리고 본 조사의 연령계급별 이상자녀수를 比較함으로써 이에 代身하고자 한다. 물론 이 4개 조사는 相異한 標本設計에 의해 抽出된 應答者에 대한 調査이고 標本數마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信賴度가 극히 낮다는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다. 1978년과 1982년이 5년 간격이 아니라는 점도 엄밀한 의미의 코호트分析을 許用치 않는다. 어쨌든 表 3 에서 새로 可妊集團에 合流하는 女子들의 理想子女數가 最近에 이룰수록 낮아지고 있을 뿐아니라, 各 出生코호트의 平均理想子女數도 時間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이로 보아서 少子女 理想으로의 志向은 부인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 단언할 수 있겠다. 問題는 “이런 추세가 어떤 속도로 언제까지 持續될 것인가?”에 있는데 이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教育水準의 一般的 向上, 都市化가 少子女 價值觀 形成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들 自體의 速度(rapite of change)에 대한 正確한 予測이 必要하고, 이들 諸變數를 다 포함시키고 그 相互作用의 與否까지 檢證할 수 있는 分析模型이 設定되어야 하므로 本稿에서는 다룰 수 없다.

教育和 年齡은 密接한 關係에 있기 때문에, 이 두 變數 혹은 이 중 한 變數와 問題로 삼고 있는 從屬變數와의 單純相關係數만 가지고 因果關係를 推測할 때 자칫 오류를 범하게 된다. 獨立變數 중 하나를 統制하고 從屬變數와의 關係를 살피면 이런 誤謬를 피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相對的인 影響力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엄격한 統計的 統制가 不可能하므로 편의상 教育水準과 年齡을 각각 3個集團으로 나누고 可能的 9개 경우에 속하는 應答者들의 平均 理想子女數를 比較하는 方法을 使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表 4 에서 어느 年齡層에서나 教育水準이 높아질수록 一律的으로 理想子女數가 낮아지고 있으며 그 傾斜도 거의 같다. 마찬가지로 어느 教育水準에서나 婦人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理想으로 하는 子女數가 많아 지기는 하지만 各 教育水準에서의 傾斜(年齡別 差異)가 약간 다른것을 보

이나 앞의 경우와 大差가 있는것은 아니다. 여기서 理想子女數는 教育水準과 年齡에 따라 달라지고 이 變數의 相互作用 效果(interaction effect)가 거의 없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Ⅲ. 性選好와 子女의 追加希望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理想子女數와 實際子女數와의 隔差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은 強한 性選好 즉 男兒選好 때문인 것으로 指摘되고, 政府 當局도 이 男兒選好라는 価値를 拂拭하는데 政策의으로 큰 比重을 두고 있다. 男兒選好가 人口增加 抑制의 큰 障礙要因이 된다는 結論은 몇가지 實證的 調查結果에 根據를 두고 있다.

첫째가 우리나라에서는 理想男兒數가 理想女兒數보다 높으며, 理想子女數가 높은 것은 바로 이 理想男兒數가 높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둘째 理想男兒數가 높을 뿐만 아니라 理想的인 數의 아들을 두고자 하는 願望의 程度가 理想的인 數의 딸을 낳아야 하겠다는 願望의 그 것보다 훨씬 強烈하다는 점이다. 이 점을 너무 強調하는 나머지 子女數에 대한 選好, 특히 理想女兒數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都市地域보다는 農村地域에 사는 사람들이 價值觀의 變動을 포함한 社會變動에 대하여 抵抗的이라는 事實은 子女數에 관한 價值觀에서도 確認되고 있다. 表 5에서 男兒이거나 女兒이거나 理想的인 數는 어느 調查에서나 同一하게 農村地域에서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 理想子女數의 男女差가 年度와 地域에 差異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差異 역시 都市에서보다 農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理想男兒數와 理想女兒數의 差異를 性選好의 指標로 볼 수 있다면 이 表로부터 性選好 程度가 農村地域에서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地域差의 相當部分이 教育의 地域差때문에 연유하였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 表에서 發見되는 興味로운 事實中 하나는 理想男兒數의 地域差가 어느 年度에서나 0.3으로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理想女兒의 境遇, 1976年以後 1.1에 固定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들은 統計的인 檢證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男兒選好의 年度別 趨勢에 대하여 信賴할 만한 推論은 어렵다.

性選好의 地域間 差異는 理想子女數의 性別構成을 물었을 때 “아들이든 딸이든 區別하지 않는다”고 應答한 應答者들의 百分率을 比較해보면 된다. 表 6에서 大都市로 갈수록 “男女를 區別하지 않는다”. 즉 性選好를 가지지 않은 應答자의 비율이 높아진다. 性選好의 程度는 理想子女數와 마찬가지로 年齡이 높아질수록, 教育水準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經濟的인 生活水準이 낮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理想男兒數와 理想女兒數의 應答婦人特性別 百分率分布를 보면 모두다 理想子女數에서와 똑 같은 傾向을 발견할 수 있는데, 理想子女數가 理想男兒數와 理想女兒數를 더한 것이고, 男兒를 많이 원하는 사람이 또한 女兒도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1969년 우리나라 家族計劃 標語가 “적당히 낳아 잘 기르자”에서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 標語에 대한 呼應度를 調査한 結果는 1978年 調査에서 最初로 報告되었다. 表 7 에서 불과 4 년만에 曄異한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이 標語를 採択할 當時의 數値가 있다면 最近 4 년간의 相對的인 變動의 速度를 보다 正確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表 7 에 나타난 差異는 劃期的이고 鼓舞的인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質問에 대한 應答結果는 소위 樂隊車 效果(band wagon effect)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最近의 현저한 변동은 최근 政府의 強力한 誘引 및 規制策에 힘입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 表에서도 대도시로 갈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계획표어에 대해 찬동하는 부인들이 많아서 앞의 여러가지 항목에 나타난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調査에서 共히 2名의 子女數에 대해서는 贊成하나 子女의 性別構成에 反對 意見을 보이는 應答者들이 子女의 性別構成에 대해서는 贊成하나 子女數에 대해서는 反對하는 사람보다 월등 많은 것은 우리나라 婦人들은 男兒를 두고자 하는 願望이 強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이 같은 解釋은 우리나라 婦人들이 두 子女를 낳고도(혹은 원하는 數의 子女를 낳고도) 출산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고 지나치게 強調되어 왔다. 여기에 덧붙여 子女의 性에 대한 選好를 測定함에 있어 男兒 女兒 各各에 대한 願望의 程度를 보지 않고 女兒에 比하여 男兒를 얼마만큼 더 원하는가 하는 相對的인 選好度를 보기 때문에, 性選好 즉 男兒選好가 出産力에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異를 가져 오기는 하나 그 影響力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女兒에 대한 願望도 원하는 수보다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表 8 에서 찾아볼 수 있다.

表明된 態度 혹은 意見이 그대로 行動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實際的인 場面에서 現存子女의 性構成이 次後의 出産行動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을 表 8 에서 看破할 수 있다. 妊娠이 可能하고 現在 2名의 子女를 두고 있는 婦人중 앞으로 出産을 計劃하고 있는 182名중 大部分이 아들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72%), 비슷한 수의 婦人들이 딸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각각 12%, 13%) 出産을 中斷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應答婦人들의 特性別 分布가 앞서 살펴본 몇가지 사항에서와는 달리 一貫性있고 뚜렷한 差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異彩롭다. 事例數가 극히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確實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婦人들의 實際的인 出産行動은 出産行動에 關聯된 態도와 比較해서 地域, 年齡, 教育 등의 影響을 크게 받지않는다는 假說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지만, 教育, 年齡, 居住地域 등의 變數들이 두 자녀에서 斷産할 것인가, 出産을 繼續할 것인가를 決定하는데 이미 그 影響力을 消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現存子女數가 2名인 婦人은 1,225名으로 그 중 약 15%에 해당하는 182명만이 계속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集計되었다. 물론 1,225名중 大部分이 이미 確保된 子女의 性構成에 滿足하고 있는 경우이겠지만 性構成에 滿足하지

않지만 子女數가 이미 願하는 數(2名)에 到達하였으므로 더 以上の 子女를 낳아서 원하는 數만큼의 아들(혹은 딸)을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婦人の 諸特性이 이들의 出産終結 與否를 決定하는데 影響력을 미쳤을 것이다.

追加希望子女數는 主로 現存子女의 數와 性構成 그리고 理想的인 子女의 數와 性構成에 의하여 決定이 된다 하겠다. 여기서 現存子女數에 따라서 追加希望子女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表9와 같은데 미리 밝혀둬야 할 점은 어 表의 數値는 모든 應答者の 應答結果에서 計算된 것이 아니고 妊娠可能性을 喪失하였거나 의심스러운 境遇는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表9에서 追加希望子女數는 現存子女數가 増加함에 따라 減少되고 있지만(이는 당연한 사실이다), 現存子女數가 2名에 이르렀는데도 5分の1가량의 婦人이 追加로 子女를 希望하고, 3名이 되었는데도 10% 以上の 婦人들이 出産을 繼續할 意思를 表明하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願하는 數만큼의 男兒 혹은 女兒를 두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現存男兒-女兒 別로 추가희망자녀수의 分布를 比較해 보면 아들이 없는 婦人の 22% 가량이 出産을 終結할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딸이 없는 婦人の 38% 가량이 출산을 끝낼 뜻을 밝히고 있다. 딸이 한명이거나 아들이 한명인 부인들중 出産을 終結할 예정으로 있는 부인의 비율이 각각 67.7%, 68.2%로 거의 비슷하다가, 2名이 되면 男兒의 경우가 크게 앞질러서 95%에 달하는 반면 女兒의 경우 80%에 미달하고 이 수치는 現存女兒數가 많아지더라도 별 변동없이 持續된다. 이 같은 現象은 우리나라 婦人들이 最小限 한명의 아들은 두어야 겠다는 強한 願望을 反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딸이 두명인 경우 5分の1 남짓이 계속 출산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앞의 表8에서 아들이 꼭 있어야 하므로 출산을 계속 하겠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하였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이들 중에 아들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9에서 한명 以下の 子女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출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24%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숫자만을 가지고 “한 자녀 갖기 운동”의 가능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1976年度 調查結果(20%)와 比較해 볼 때 한 子女로 만족하는 婦人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分明하고 언젠가는 별로 큰 반작용없이 “한 자녀 갖기 운동”을 推進할 수 있을 것 같다.

IV. 理想과 實際의 隔差

本橋의 序頭에서 밝힌 것처럼 理想子女數가 두 名을 넘는다는 점도 문제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이 理想子女數보다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된다. 먼저 實際子女數를 現存子女數와 追加希望子女數를 합한 期待子女數로 把握, 應答婦人別 分布를 보면 表10과 같다. 이 表에서 農村地域으로 갈수록, 年齡이 높아질수록, 教育水準이 낮아질수록,

經濟水準이 떨어질수록 期待子女數가 많아져서 理想子女數에서 보여준 傾向과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變化의 기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理想과 實際의 隔差에 있어서 다소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個人別로 期待子女數에서 理想子女數를 除하여 한 變數(理想-實際 隔差)를 計算하여 應答者의 特性別로 分類하면 된다.

表11은 理想-實際 隔差가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實際子女數가 理想子女數보다 많다는 것을 말한다. 먼저 地域別로 보면 農村地域으로 갈수록, 年齡이 높아질수록,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理想과 實際의 隔差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經濟水準別 隔差는 다른 特性에서와 같이 뚜렷한 傾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서 都市 居住者의 比率이 높아지고 教育水準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 理想-實際의 隔差가 점점 좁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年齡別 差異를 가지고도 꼭같은 豫想이 可能하지만 부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도 이 隔差가 변하지 않거나 좁아지리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理想과 實際의 隔差가 完全히 사라지는 데는 10년 以上の 期間이 所要될 것 같다. 현재 理想-實際의 隔差가 적은 年齡層이 高年齡層으로 물러나고 隔差가 더 적은 새로운 婦人들이 出產人口에 들어와서 全體的으로 均衡을 이루게 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期間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넓은 연령층에서 理想-實際의 隔差가 작지만 이들이 출산을 계속하는중 바라는 자녀의 性構成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출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理想-實際의 間隔은 現存子女의 數와 性構成에 의해 크게 左右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表1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子女를 두명 가질때까지는 平均 期待子女數가 平均理想子女數보다 크지만 3名 이후부터는 期待子女數 즉 實際子女數가 많아진다. 이 隔差의 平均이 커지는 速度를 男·女 現存子女數 別로 比較해보면 現存女兒數에 따라서 커지는 速度가 男子의 경우에서 보다 큰데, 이것은 앞의 表9의 結果와 一致한다. 즉 일단 한 名 혹은 두名 이상의 아들을 가지게 되면 出產을 중지하게 되므로 理想子女數와 期待子女數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理想-實際 隔差의 年齡別 차이는 婦人의 年齡에 의해서만, 구체적으로 말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表 1. 年度別 各種 平均 子女 數의 變化趨勢

	1965	1967	1971	1973	1976	1978	1982
(1) 理想子女數(%分布)							
1-	0.3	0.4	-	1	4.2	1.1	5.5
2	4.1	3.7	6	20	39.8	42.8	54.6
3	33.4	33.3	42	52	36.6	42.8	30.5
4+	59.0	56.2	52	27	19.4	13.3	9.4
미 상	3.2	6.4	-	-	-	-	-
平 均	3.9	3.9	3.7	3.1	2.8	2.7	2.5
(2) 平均 現存 子女 數	3.6	3.6	3.2	3.1	3.0	2.9	2.4
(3) 平均追加希望子女數	0.9	-	0.8	0.6	0.4	0.4	0.2
(4) 平均期待子女數	4.5	-	4.0	3.7	3.4	3.3	2.7
(4) = (2) + (3)							
(5) = (4) - (1)	0.6	-	0.3	0.6	0.6	0.6	0.3
事 例 數	3,445	3,624	4,616	1,671	5,064	3,035	4,352

表 2. 應答婦人特性別 理想子女 數의 年度別 變動趨勢

	1968	1973	1978	1982
年 齡				
20 — 24	3.5	3.0	2.5	2.1
25 — 29	3.6	2.9	2.7	2.2
30 — 34	3.9	3.1	2.8	2.5
35 — 39	4.2	3.3	2.9	2.6
40 — 44	4.4	3.4	3.0	2.9
居住地域				
大 都 市	-	2.8	2.5	2.3
其他都市	-	2.9	2.6	2.4
農 村	-	3.4	2.9	2.7
教育水準				
無 學	4.3	-	3.2	3.0
國民學校	3.8	-	2.8	2.7
中 學 校	3.4	-	2.5	2.3
高 校	3.1	-	2.2	2.2
大學以上			2.2	2.2

表 3. 應答者特性別 理想子女數 百分率分布

	1 以下	2	3	4 ⁺	平 均
居住地域 (N)					
大 都 市 (1833)	7.3	64.0	23.5	5.1	2.3
其他都市 (1003)	5.1	56.9	29.4	8.6	2.4
農 村 (1516)	3.5	41.6	39.6	15.3	2.7
年 齡					
15 — 19 (21)	19.0	61.9	14.3	4.8	2.0
20 — 24 (552)	11.4	69.9	17.2	1.5	2.1
25 — 29 (1149)	7.3	67.5	22.0	3.2	2.2
30 — 34 (995)	4.3	53.9	33.1	8.7	2.5
35 — 39 (803)	3.3	46.2	36.5	14.0	2.6
40 — 44 (826)	1.9	35.5	42.7	19.9	2.9
教 育					
無 學 (304)	1.6	29.3	42.4	26.6	3.0
國民學校 (1596)	2.2	43.2	41.4	13.2	2.7
中 學 校 (1286)	6.6	63.5	25.0	5.0	2.3
高 校 (954)	10.1	67.1	18.7	4.2	2.2
大學以上 (212)	8.0	67.0	17.9	7.1	2.2
年 間 所 得					
上 (617)	6.7	60.5	25.4	7.4	—
中 (2381)	5.8	56.7	29.4	8.1	—
下 (1350)	4.4	48.3	34.8	12.5	—
文化 器具 所有					
上 (209)	5.7	63.6	18.7	11.9	—
中 (722)	7.0	61.2	25.5	6.2	—
下 (3419)	5.1	52.7	32.3	10.0	—

表 4. 年 齡 別・教 育 別 平 均 理 想 子 女 數

	無學・國民學校	中・高等學校	大 學 以 上	合 計
14 — 24	2.2 (162)	2.0 (402)	1.9 (9) *	2.1 (573)
25 — 35	2.6 (705)	2.2 (1,296)	2.2 (143)	2.3 (2,144)
35 — 44	2.9 (1,031)	2.7 (503)	2.5 (59)	2.8 (1,635)
計	2.7 (1,896)	2.2 (2,238)	2.2 (212)	

*는 5 以下의 事例數

表 5. 地域別 平均性別 理想子女數의 變化趨勢

	1967			1971			1973			1976			1978			1982		
	男	女	差	男	女	差	男	女	差	男	女	差	男	女	差	男	女	差
全 國	2.4	1.7	0.7	2.2	1.5	0.7	1.9	1.2	0.7	1.8	1.2	0.6	1.6	1.2	0.4	1.5	1.1	0.4
都市地域	2.2	1.4	0.8	2.1	1.3	0.8	1.8	1.1	0.7	1.6	1.2	0.4	1.5	1.1	0.4	1.4	1.1	0.3
農村地域	2.5	1.8	0.7	2.4	1.9	0.5	2.1	1.3	0.8	1.9	1.3	0.6	1.8	1.2	0.6	1.7	1.2	0.5
地 域 差	0.3	0.4	0.1	0.3	0.6	0.3	0.3	0.2	0.1	0.3	0.1	0.2	0.3	0.1	0.2	0.3	0.1	0.2

表 6. 應答婦人特性別 理想男兒數, 理想女兒數 百分率分布

(N)	理 想 男 兒 數				구별 없이	理 想 女 兒 數			
	0	1	2	3+		0	1	2	3+
전 체 (4352)	0.2	36.7	33.6	2.2	27.3	2.3	60.1	10.1	0.3
地 域 別									
大 都 市 (1833)	0.2	42.4	23.0	0.5	33.8	2.5	56.9	6.8	0.1
其他都市 (1003)	0.4	37.5	32.4	2.0	27.7	2.5	60.2	8.9	0.6
農 村 (1516)	0.1	29.4	47.1	4.4	19.0	1.7	64.0	14.6	0.6
年 齡 別									
15 — 19 (21)	—	42.9	14.0	0	42.9	4.8	42.9	9.5	0
20 — 24 (552)	0.9	42.8	17.8	0.2	39.1	3.8	54.9	2.0	0
25 — 29 (1149)	—	43.7	21.1	0.3	34.3	2.9	58.2	4.5	0.1
30 — 34 (995)	0.2	37.2	35.2	1.0	26.5	1.7	61.5	9.8	0.4
35 — 39 (803)	0.2	34.2	42.2	3.3	19.9	1.7	63.9	14.1	0.3
40 — 44 (826)	0.1	24.9	51.2	6.6	17.2	1.5	61.7	18.8	0.8
教 育									
無 學 (304)	—	20.7	55.9	10.9	12.5	2.3	60.5	23.4	12.8
國民學校 (1596)	0.3	31.8	47.2	2.8	17.9	1.7	66.7	13.2	17.9
中 學 校 (1286)	0.2	41.6	25.1	0.9	32.2	2.4	58.6	6.7	32.2
高 校 (954)	0.3	43.6	18.2	0.5	37.3	2.7	54.4	5.1	37.3
大學以上 (212)	—	36.6	19.3	0.9	43.4	3.8	44.8	8.0	43.4
年 間 所 得									
上 (617)	0.3	34.7	25.4	0.5	39.1	1.8	49.9	9.1	0.5
中 (2381)	0.3	39.3	31.8	2.0	26.6	2.7	61.4	9.0	0.3
下 (1350)	0.1	33.3	40.4	3.3	22.9	1.7	62.8	12.0	0.5
文化 器具 所有									
上 (209)	0	38.3	23.0	0.5	38.3	1.0	47.4	13.4	0.4
中 (722)	0.1	39.2	26.3	0.6	33.8	2.6	55.7	7.9	—
下 (3419)	0.3	36.2	35.7	2.6	25.2	2.3	61.9	10.2	—

表 7. 家族計劃標語에 대한 贊反意見

	전적으로 찬성	둘만남자는찬성 팔아들 구별 없이는 반대	구별없이는찬성 둘만남자는반대 (너무적다)	전적으로 반대	기 타
1978	49.2	20.6	2.7	18.8	8.7
1982	72.3	16.8	3.3	7.6	-
地 域 別					
大 都 市	79.8	12.9	3.2	4.0	
其他都市	71.0	19.7	2.3	7.0	
農 村	64.1	19.5	4.2	12.3	
年 齡 別					
15 — 24	81.9	11.7	3.1	3.3	
25 — 34	75.4	16.7	2.9	0.7	
35 — 44	64.9	18.8	3.9	12.4	
教育水準					
無 學	53.0	22.7	4.9	19.4	
國民學校	64.8	19.9	4.1	11.2	
中 學 校	76.4	16.2	2.8	4.6	
高等學校	82.0	12.3	2.7	3.0	
大學以上	87.0	8.8	1.4	2.4	

表 8. (두子女婦人) 出産繼續 理由 百分率分布

(N)	아들이 꼭 있어야 하므로	딸이 꼭 있어야 하므로	둘은 너무 적어서	기 타
全 體 (182)	72.0	12.1	12.6	3.3
地 域 別				
大 都 市 (77)	70.1	11.7	13.0	5.2*
其他都市 (34)	73.5	14.7	8.8*	2.9*
農 村 (71)	73.2	11.3	14.1	1.4*
年 齡 別				
15 — 24 (22)	72.7	13.6*	13.6*	-
25 — 34 (146)	73.3	11.0	11.6	4.1
35 — 44 (14)	57.1	21.4*	21.4*	-
教育水準				
中學以上 (132)	71.9	12.9	12.1	3.0*
高校以上 (50)	72.0	10.0	14.0	4.0*

*는 5 以下의 事例數

表 9. 現存子女數別 追加希望子女數分布 (평균)

	(N)	0	1	2	3	4	平均
理 存 子 女 數							
0	(250)	3.2	28.8	54.4	9.2	4.4	1.804
1	(670)	20.5	68.9	10.0	0.4*	0.2*	0.909
2	(815)	79.5	19.1	1.5	0.1*		0.224
3	(522)	89.3	10.0	0.7*			0.115
4+	(455)	93.2	6.6	2			0.070
現 存 男 兒 數							
0	(829)	21.7	49.7	25.9	3.1	0.4*	1.119
1	(1135)	67.7	28.8	3.3	0.2*	0.1*	0.362
2	(575)	95.3	4.2	0.2*			0.052
3	(129)	96.1	3.9*				0.039
4+	(32)	100.0					0.0
現 存 女 兒 數							
0	(924)	38.0	37.4	21.4	2.7	0.5*	0.909
1	(977)	68.2	27.0	4.5	0.3*		0.369
2	(478)	78.2	19.5	2.3			0.241
3	(213)	81.2	17.8	0.9*			0.197
4+	(110)	80.0	19.1	0.9*			0.209

*표는 事例數가 5 以下인 경우임.

表 10. 應答婦人特性別 期待子女數分布와 平均

	(N)	0	1	2	3	4+	平 均
全 體 (2754)							
		0.3	7.6	46.8	25.9	16.7	
地 域 別							
大 都 市 (1151)		0.2*	9.2	55.1	25.7	9.8	2.4
其他都市 (688)		0.3*	7.4	47.8	25.7	18.8	2.7
農 村 (915)		0.4*	5.7	35.5	26.2	32.2	3.1
年 齡 別							
15 — 24 (541)		0.7*	14.2	69.0	13.9	2.2	2.0
25 — 34 (1527)		0.3*	7.3	52.7	28.2	11.5	2.5
35 — 44 (686)			3.1	16.0	30.3	50.6	3.7
教育水準							
國卒以下 (1037)			22.9	28.6	31.4	37.3	3.3
高 卒 (1579)	0.5		10.3	56.7	23.4	9.1	2.3
大卒以上 (138)			11.6	69.6	15.2	3.6	2.1

表10. 계속

	(N)	0	1	2	3	4 ⁺	平均
年間所得							
上	(824)	0.1*	5.9	41.7	26.2	25.9	-
中	(1554)	0.3*	8.0	48.8	25.8	17.2	-
下	(372)	0.8*	9.1	49.5	25.8	14.9	-
文化器具所有							
上	(2225)	0.3*	7.5	45.6	25.4	21.2	-
中	(420)	0.5*	7.9	51.4	29.1	11.1	-
下	(108)		8.3	53.7	24.1	13.9	-

*는 事例數 5以下인 경우

表11. 應答婦人 特性別 理想—實際 隔差의 百分率 分布

	(N)	-2 이하	-1	0	1	2 이상	平均
全 體 (2754)							
		1.0	10.6	59.7	17.4	11.3	0.318
地 域 別							
大 都 市 (1151)		1.2	13.0	63.2	18.2	5.7	0.175
其他都市 (688)		1.2	13.2	60.2	17.3	10.2	0.298
農 村 (915)		1.0	9.9	54.9	16.4	18.9	0.512
年 齡 別							
15 — 24 (541)		0.6	11.7	80.8	6.5	0.6	-0.040
25 — 34 (1527)		1.0	11.5	64.0	17.6	5.9	0.179
35 — 44 (686)		1.8	7.9	33.5	25.5	31.3	0.911
教育水準							
無 學 (146)		2.1	8.9	32.9	15.1	41.2	1.096
國民學校 (891)		0.9	8.5	51.3	21.0	18.2	0.543
中 學 校 (888)		0.9	10.2	65.5	17.3	5.9	0.182
高等學校 (691)		1.0	12.4	67.4	14.8	4.1	0.122
大學以上 (138)		2.9	19.6	65.9	9.4	2.1	-0.102
年間所得							
上	(372)	2.1	13.4	57.8	16.1	10.6	-
中	(1554)	0.8	11.2	60.9	16.9	12.4	-
下	(824)	1.2	8.4	58.0	17.1	15.3	-

表 11. 계속

	(N)	0	1	2	3	4	平均
文化器具所有							
上	(108)	3.7	14.8	60.3	14.8	6.5	—
中	(420)	1.6	12.6	57.9	20.5	7.3	—
下	(2225)	0.8	10.1	60.0	16.9	12.0	—

表 12. 現存子女數에 따른 理想 - 實際의 隔差 (平均)

	0	1	2	3	4 ⁺
現存子女數	-.147	-.128	-.032	.452	1.743
現存男兒數	.153	.228	.477	1.101	1.844
現存女兒數	.088	.067	.586	1.412	1.168